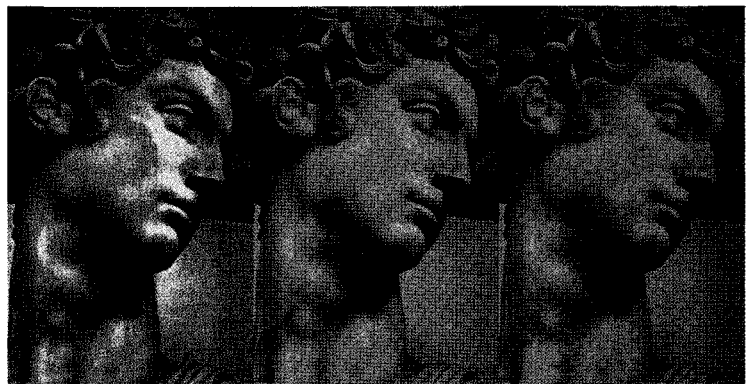


이제 남성이 변화할 때다

:: 유 마 혜 구세군 레드리본센터 소장

질병관리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4년 3월 현재, 에이즈 감염인은 2,679명에 이른다. 이 중 남자가 2,406명으로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273명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에서 보듯이, 남성 감염인수는 여성 감염인수의 8.8배나 많고 감염인 연령의 62.2%는 20~30대에 분포되어 있다. 감염경로의 97.7%는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다. 그러나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실제 감염인 수는 보편적으로 확인된 숫자의 5~10배까지 추정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감염예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성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많은 이유가 뭘까? 감염의 대부분이 성접촉과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성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뿌리깊은 남성우월주의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접대문화(소위 '2차'라는 성



문화)를 꼽을 수 있으며 셋째는 성개방 풍조로 인해 대다수의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성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변 곳곳에 각종 퇴폐업소와 율락업소가 산재해 있어 누구나 쉽게 성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용돈 마련을 위해서 '원조고제'를 하는 청소년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이유 외에도 HIV/AIDS의 감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HIV/AIDS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의 주체요 중심인 남성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남성 또한 순결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랑없이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성을 살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건전한 성생활, 그리고 안전한 성생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을 때에는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본인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남에게 에이즈를 무의식적으로 감염시키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염인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그들을 낙인찍고 차별하는 제 2의 살인 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나 동등한 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에이즈 감염을 근본적으로 막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감염인을 감싸주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 감염인 스스로도 좌절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용기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 또한 땀땀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밝혀도 서로 이해하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